

[영국 르네상스 문학에 나타난 인문주의와 기독교의 갈등*
- 에드먼드 스펜서의 『요정여왕』 (The Faerie Queene)을 중심으로 -

김 호 영**

영국 르네상스의 시인과 극작가들을 연구할 때 흔히 염두에 두는 사상은 기독교 인문주의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아주 애매한 용어이다. 먼저 기독교 인문주의 그 자체는 고사하고 그것의 구성 요소인 인문주의와 기독교조차 결코 수미 일관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이상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네오플라토니즘을 신봉했던 피치노(Marsilio Ficino, 1433-1499)의 인문주의와 냉혹한 현실 정치를 세속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의 인문주의가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자유의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지식인들은 대개가 인문주의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동시에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그들 속에서 이 두 사상이 만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대답하기 곤란한 성격을 띄게 된다.

서구 문명의 역사를 조망해보면 우리는 그 근저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와 기독교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양자는 매우 상이하면서도 대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수백 년에 걸친 힘들고도 복잡한 역사적, 신학적 과정을 거쳐서 중세의 카톨릭적인 세계관 속에서 비교적 조화로운 결합을 이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결합은 이태리에서 발생한 르네상스와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에 의해서 해체되게 된다. 우리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 반기를 든 점과 루터나 칼뱅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부패에 격렬하게 반항한 사실에만 주목하여 막상 르네

* 본 논문은 1999년 3월 24일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임.

** 본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상스 인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사이의 근본적인 괴리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각각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화와 초기 기독교적 이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함으로 양자 사이에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매우 심각한 이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새롭게 눈뜬 그리스 로마의 고전적 이상과 초기 기독교 이상의 요체는 무엇인가?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102?-44 B. C.)의 후계자였던 아우구스투스(Octavianus Augustus, 63 B. C.-A. D. 14)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내세우기 시작한 “로마제국의 영속성”(Aeternitas Populi Romani)라는 이상은 그리스 문명에서 시작된 헬레니즘의 모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염원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다. 로마제국은 오랜 세월을 걸친 야만족들과의 투쟁과 가변적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가져다 주는 불안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로마제국이 보장하는 질서와 평화(Pax Romana) 속에서 인간은 마침내 그의 모든 세속적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발견한 것이다. 이 체제 속에서 인간은 헬레니즘의 목표인 인간적 탁월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에 내재하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인간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표라는 문제에 대해서 도달한 최종적인 결론이다.

하지만 로마제국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불후의 명저인 『신국』(神國, *Civitas Dei*)을 쓴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아우구스틴(St. Augustine of Hippo, 345-430)은 제국의 안정이라는 세속적이고 유한한 가치에만 매달린 로마제국의 한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역사는 인간이 이룩한 정치체제가 아니라 신의 왕국의 도래라는 초역사적 사건에 의해서만 완성됨을 설파하였다. 또한 아우구스틴은, 인간의 모든 희망을 인간에 내재한 능력 혹은 힘인 덕(Virtus)의 실현에 둔 헬레니즘이 인간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인간을 이상화하는 죄를 범하고 결국 비극적 파멸을 초래하는 점을 지적하고 탁월함 대신에 오만의 죄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세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던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c. 1225-1274)는 고전문화와 기독교라는 대립하는 세계관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아우구스틴은 죄를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초월하려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은폐시키고 중국적으로는 절대화시키고야마는 오만함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죄를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지녔던 완전함의 상실로 해석함으로써 고전문화와 기독교간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상의 차이를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퀴나스에 의해서 확립된 중세적 세계관은 세계를 자연의 영역(Nature)과 초자연적인 은총(Grace)의 영역으로 구분함으

로써 자연의 영역 안에서는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은총의 영역에서는 신앙만을 인정했다. 결국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우위를 전제로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고전문화의 권위를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과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원래 상이한 인식을 지닌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화와 기독교가 다시금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형태로 서양에서 15세기를 전후하여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함으로써 중세 카톨릭 신학이 이룩한 고전문화와 기독교의 통합은 해체되게 된다.

돌이켜보면 그리스 로마의 인간관은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만이 영속적이고 완전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인간을 신의 이미지라는 초이성적인 측면과 흠이라는 불완전한 요소의 역설적인 결합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와 매우 상이한 성격을 띄고 있다.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 또한 세계를 이성적 질서와 비이성적 무질서로 양분하는 이원적 세계관을 취함으로써 윤리적으로는 인간을 자신의 비이성적인 요소와 끊임없는 싸워야하는 자기 분열적인 존재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비이성적인 야만족들을 끊임없이 정복하고 제어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우월한 문명국가로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관이 결코 신을 이성적 질서와 동일시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을 역사의 주인으로서 내세우지도 않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 르네상스는 고전문화의 Virtus(인간의 탁월한 능력 혹은 힘)이라는 개념에서 인간의 모든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고, 종교개혁은 인간의 오만이라는 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궁극적으로는 용서를 통해서 인간을 바로 세우는 신의 Grace(은총)에서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보았다.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며 그가 이룩하는 모든 것은 신의 은총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지닌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실현시킴으로써 인간적인 탁월함 자체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정신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의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개시켜보자. 영국은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하고 나서부터는 확고한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자리잡아 갔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시드니(Philip Sidney, 1554-1586)나 스펜서(Edmund Spenser, 1552-1559) 그리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와 같은 작가들은 종전 싫건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 대한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교리상 칼비니즘의 영향이 강하게 침투된 영국 국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드니나 스펜서는 특히 정치적으로 영국 정부안에서도 유럽의 카톨릭 세력의 맹주였던 스페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노선을 취했던 프로테스탄트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인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결합이 갖는 매우 복잡한 양상이 특히 잘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프로테스탄트 인문주의라는 용어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인문주의가 갖는 애매성과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 인문주의도 그 성격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영국의 문화와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마르크스와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영향을 받아 종교적 사상마저 그것이 퍼져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 혹은 계급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문화 유물론은 프로테스탄티즘을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엘리자베스 조의 정치 사회 질서를 옹호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간주한다. 특히 신필드(Alan Sinfield)와 같은 비평가는 프로테스탄티즘 속에서 매우 모순적인 측면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그는 당시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신의 은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은 신의 은총에 영향을 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타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일각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화적 노력 특히 예술이 항상 이상화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고 매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음도 지적한다. 반면에 인문주의는 인간성의 고양과 인간이 갖는 잠재력의 극대화를 강조하며 인간의 모든 문화적, 예술적 노력 특히 시를 창조적 상상력의 가장 고귀한 표현으로 여겼다. 따라서 문화 유물론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테스탄트 인문주의는 그것이 갖는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 내부로부터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신필드는 특히 스펜서의 후기 작품에서 강하게 노출되는 영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짙은 비관주의를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당시 영국 문화 속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흄(Anthea Hume)과 같은 비평가는 엘리자베스 조 시대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단순히 맹목적인 신앙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특히 칼비니즘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의 윤리적, 문화적 삶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을 아울러 강조하였음을 지적한다. 일단 기독교인이 죄사함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신의 은총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윤리적인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로 이때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학, 철학, 역사가 지닌 풍요로운 자원이 그가 성스러운 삶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흄은 이러한 태도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인문주

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세속 문화의 적극적 개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형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흘의 주장은 왜 스펜서나 밀턴(John Milton, 1608-1678)과 같은 시인들이 그들의 작품에 명백히 고전적이고 이교적인 요소들을 그렇게 폭넓게 끌어드렸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스펜서나 밀턴은 결코 고전적이고 이교적인 요소들을 기독교적인 요소와 무원칙적으로 혼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개혁 혹은 재구성(reform)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신필드와 흘의 주장은 영국 르네상스 최대의 서사적 로망스인 『요정여왕』이라는 작품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복잡한 비전을 완전히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프로테스탄티즘 자체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신필드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인문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만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그 점이 스펜서의 시에 창조적 긴장을 불어넣고 작품에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문화를 적극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흘은 스펜서 자신이 보여주는 보다 조심스럽고 비관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침묵하고 있다. 스펜서에게 프로테스탄트 인문주의는 결코 일사불란한 사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르네상스와 인간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결코 오만과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종교 개혁적인 통찰이 서로 역동적으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장이었다는 가설이 더 옳지 않을까?

『요정여왕』의 제 1권을 예로 들어보자. 이 작품은 일차적으로는 기독교인이 거쳐야 하는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 보임과 동시에 부수적으로는 카톨릭교로부터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개종한 영국 사회가 힘들게 겪었던 종교개혁의 과정을 알레고리와 서사적 로망스라는 양식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는 레드크로스라는 이름의 기사가 등장한다. 그는 처음부터 기독교 기사로서 행세하지만 그는 기독교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내세우는 기독교 영웅주의는 실은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건 고전적 영웅주의에 불과하게 된다. 그가 마침내 이태리어로 오만을 뜻하는 오르고글리오라는 거인에게 철저히 패배 당하는 것은 스펜서 자신이 기독교와 인문주의를 선부르게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반면에 그 이후 레드크로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 기사로 다시 태어나며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 역량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인문주의가 기독교의 이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작품은 레드크로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남으며 세상 속에 편재한 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난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스펜서는 중세 카톨릭 교회를 이상화와 오만의 이름으로 단죄했던 종교개혁이 스스로 역사 속에서 승리를 구가하는 것은 또 다른 오만의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보편적인 기독교인 혹은 프로테스탄트 영국민을 대변하는 레드크로스의 최후의 승리는 역사 속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오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역사에 대한 신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스펜서의 프로테스탄트 인문주의는 그의 주인공들에게 역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도록 다그치지만 결코 그들이 끈덕지게 지속되는 역사의 모순과 죄악에 대한 자기 기만적인 승리를 맛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스펜서의 작품에서 프로테스탄트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당대의 가장 커다란 문화적, 종교적 혁명이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위대함과 비참함의 가능성을 동시에 짚어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스펜서의 독특한 시각을 시적으로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